

「원주~강릉 단선철도 건설계획」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12. 17 (목)

제 출 자 : 유인환 의원외 6인

1. 제 안 이 유

- 가. 원주~강릉간 철도사업은 2006년 수립된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영 돼 있었으나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단선철도 건설 추진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임.
- 나. 정부의 강원도 확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원주~강릉간 단선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없음.
- 다. 이에 수차에 걸쳐 언급하고 보증까지 한 사업인 원주~강릉간 철도를 당초 약속한대로 복선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평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정부의 원주~강릉간 단선철도 건설계획에 대한 규탄
- 나. 원주~강릉간 복선철도 건설의 당위성 설명
- 다. 원주~강릉간 단선철도 건설계획 중단 및 복선철도 조기착공 요구

성 명 서

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을 기만하는 단선철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!

평창군의회는 정부의 원주~강릉 「단선」 철도 검토는 평창군민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열망과 지난 동계올림픽 실사 시 정부가 IOC에 두 번이나 복선으로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 버리는 행위로서 평창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개탄한다.

이미 지난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정에서 원주시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지역에 밀려 탈락되는 등 강원도 홀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일각에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단선철도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.

특히 정부가 여론 물이를 하고 있는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복선철도는 투자비가 20% 정도 밖에 더 소요되지 않는 반면에 수송용량 면에서 단선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, 경제성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

또한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복선이 더 효율적이며, 특히 정부가 IOC에 보증한 국제적인 신뢰와 직결된 사업으로서 2018 동계올림픽을 우리 평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것이다.

이제라도 정부는 수차에 걸쳐 언급하고 보증까지 한 사업인 원주~강릉철도를 당초 약속한대로 복선으로 추진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,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고 홀대되었던 평창군민의 애환과 깨어있는 의식을 존중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,

이에 우리 평창군민은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,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1. 정부는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을 기만하는 원주~강릉간 단선철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!
2. 정부는 원주~강릉간 복선철도를 조기 착공하라!

2009년 12월 일

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